

# 중국 시진핑 3기 국내외 정치 분석: 2023년 양회와 시진핑 시대 전략

김진호 |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erickim1963@gmail.com

## I. 머리말

미중관계가 세계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한반도 주변 정세 및 한중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현재 국제정세는 한국의 대외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강대국 관계는 이와 연관된 국제관계 틀 안에 있는 중견국을 포함한 국가에 국가 비전과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하게 한다.

오바마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 그리고 바이든 정부로 이어지는 미국의 대중정책은 전략 중심의 이동과 무역과 관세 제재로 그리고 과학기술을 포함한 전방위 봉쇄로 이어졌다. 이는 개혁개방을 통해 국내 경제발전을 이루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과 국방력 발전을 성취하며 확장적 대외전략을 펼치던 중국에 대해 세계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미국이 중국을 도전 국가로 인식하면서 미중관계가 '견제와 협력'에서 '봉쇄와 억제'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정치에 있어 중국이 이미 제재대상이자 봉쇄와 억제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현실이다. 미국은 과학기술·군사·금융과 국제기구 및 미국의 국제사회 영향력을 활용하여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의 동북아와 동중국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와 주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서태평양에서 중국의 군사적 확장을 더욱 억제하고 있다. 또한,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및 중동과 유럽 및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네트워크 구성도 저지 및 방해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은 중국의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투자에 따른 영향력 확대에도 이미 대비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경제·군사적 봉쇄 외에도 경제와 군사력의 기초가 되는 과학기술의 봉쇄 그리고 금융과 환율을 포함한

국제통화제도에의 중국 화폐 진입 지지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을 대표로 하는 민주주의 가치관인 ‘인권과 자유’를 통한 유사한 사회제도 국가들의 ‘가치관 동맹’을 통해서도 중국과 북한 및 러시아를 묶어서 같이 공격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는 관련 국가들의 국가이익이 미국의 국익에 앞설 수 없다는 점에서 제재대상과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들의 국익에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한국과 동남아 국가의 경우 쉽게 말해 ‘샌드위치’와 같은 형상이라 표현되기도 한다. 이것을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 부족’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현재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중국 문제’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의회의 상하원이나 정부 및 국민의식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정치·경제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미국정치의 생태에서 대중국 문제는 국내 정치의 대외확장이자 대외전략의 국내 정치화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정치는 국내외문제가 통합된 세계정치이기 때문이다.

‘덩샤오핑-장쩌민-후진타오’에서 이어 오던 평화로운 발전에서 싹트기 시작한 중화 민족주의의 대외확장 전략이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 중국 부흥의 ‘중국몽’, ‘강군몽’, ‘인재와 과학기술 발전전략’ 등으로 연결되었는데, 이는 ‘중국식 사회주의 강국’을 목표로 하기에 미국의 전방위적 제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은 군사와 경제 그리고 국가의 대외영향력을 ‘중화민족의 부흥’ 그리고 ‘중국과 세계’라는 의미로 국내 통치에 활용하고 있으므로, 쉽게 대외전략의 수정이나 축소는 힘들 것이다.

이미 국내 정치의 목표가 ‘중국 공산당의 위대한 승리와 통치’로 정해져 있고, 이를 세계정치와 연결하려는 시진핑 시대의 정치이념은 미중관계의 앞날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환경을 국내 정치의 동인으로 활용하여 중국 국내 분위기가 국제사회 환경과 다르게 돌아가게 하고 있다. 중국의 정치체제는 일당 공산당이 통치하는 상황이라 이데올로기를 기초로 한 동맹을 안보적 동맹의 끈으로 생각하며 미국에 각을 두고 안보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 북한 등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내 여론정치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냉전 시대의 안보협력을 경제와 군사와 연결하고 있는 모습이다.

공산당에 의한 국내 정치의 치안, 행정, 금융 및 군사와 대외관계를 모두 장악한 시진핑 ‘핵심’의 ‘신시대’ 정치는, 역대 중국 지도자 시기와 전혀 다르게 행정, 경제, 사회문화 환경을 모두 빅데이터를 통해 통치할 수 있게 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젊은이들의 민족주의 의식과 중국식 사회주의제도를 ‘신시대’ 특색으로 정하며 대외정치와 국내 통치의 조직적인 연계가 나타나고 있다. 즉, 과학기술과 경제력으로 공산당의 통치력이 더욱 진화된

것이다.

제20차 공산당 당대회를 기초로 3기 집권을 확고하게 한 시진핑 주석은 2023년의 양회를 통해 완전한 ‘시자권(習家軍)’으로 국가 행정과 군의 조직도 장악하였다. 중국에서는 당분간 시진핑 주석을 정점(핵심)으로 하는 세력의 조직적 통치가 대내외 정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중국 전문가나 대만의 중국대륙 연구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통치방식은 과거 마오쩌둥 시대보다 권력이 더 집중된 것으로 분석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진핑 정부 3기(2023년 양회 이후부터)의 특징을 최근 양회를 통해 드러났던 내용에 기초해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은 대만과 미국에서 제작된 전문가의 분석 및 중국정부의 발표 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를 한 해외 언론의 내용에 기초하였다.

## II. 중국의 국내외 상황과 중국정부의 판단

### 1. 양회에서 나타난 중국의 경제계획

올해 양회는 금융 부처와 중국 런민은행 및 여타 규제 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들의 요직 인선과 조직 개편을 결정하는, 10년마다 돌아오는 회의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함께 발표된 연간 목표 경제성장률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경제 전략목표를 설명하는 자리이자 미중 대립 중에서 시진핑 3연임의 시작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중국정부의 2022년 목표 성장률은 5.5%로 제시됐지만, 실제로는 3%가량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이번 양회에서 발표된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5% 인콰’이었는데, 이는 1991년 이후 32년 만의 최저치다. 목표치는 보수적으로 보이지만 이 같은 수치가 발표될 때 함께 사용된 표현과 이를 실현할 목표를 고려하면, 이는 국제 경제환경과 중국 국내 내수문제 등을 고려한 실제상황을 고려한 성장목표이다.

3월 6일 금융계와 21차이징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현대화 산업시스템 구축 가속화’라는 문구가 정부의 업무보고에 포함됐다고 한다. 미국의 집중 견제를 받는 첨단장비, 산업인터넷, 집적회로 등에 정부의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중 대립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과학기술 제재를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방은 언젠가 중국이 과거 ‘죽의 장막’ 이후 보여주었던 것처럼 정말로 자체적으로 과학기술 성과를 나타낼지 주시하는 상황이다.

시진핑 주석은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 장쑤성 대표단 회의 자리에 참석해 “우리가 예정대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과학기술의 자립과 자강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중국 국무원 개발연구센터의 쉬샤오위안 선임연구원은 “중국 산업체인 공급망에서 일부 핵심 기술은 사람에 의해 제한되고 과학기술 혁신의 성과는 크지 않다”라면서 “발전과 안전을 강조하고 주요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현대화 산업시스템 구축의 불가피한 요구 사항”이라고 평가했다. 모든 내용이 중국 과학기술에 중점을 둔 얘기다.

디지털 경제 전환, 물류 시스템 개선, 플랫폼 경제 등도 이와 관련돼 있다. 리커창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전통산업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 ‘첨단 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현대 물류 시스템 개선’,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경제발전’의 지원을 약속했다. 따라서 데이터센터, 산업 디지털화, 신형 디지털 산업(가상현실·메타버스 등), 데이터 거래 등의 분야에서 중국 내수는 호황이 될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산업의 ‘동수서산(東數西算: 발전된 동쪽 지역의 디지털 산업을 서쪽 빅데이터 산업으로 이동시켜 연계)’은 안보적 차원에서 중국의 디지털 및 빅데이터 산업을 분산 배치하기 위해 나타난 전략이자 빅데이터를 관리를 통해 중국 과학기술 발전을 이루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중국 국내 경기에서 우선순위에 올라온 소비 회복과 확대 방안으로는 신에너지 차와 가전, 의료, 문화·관광, 교육 등이 제시되었는데, 분석가들은 “향후 정책은 고용, 가계 소득, 소비자 신용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여 늘리고 소비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할 것”이라고 중국 내 산업 동향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분석가들은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나는데 그친 지방정부 특별채권 3조 8,000억위안 배정과 관련해서는 건축자재, 건축물, 기계장치, 도시재생 등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봤다. 이 정부 채권은 주로 인프라 투자에 투입된다고 했다. 부동산은 ‘부채 개선과 무질서한 확장 방지’라는 문구로 제한적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개발, 실내장식 장식, 가구·가전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천천히 부동산 경기가 풀리면 시멘트, 철강, 건자재 산업부터 가구, 가전, 자동차 산업까지 전방위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15~25%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경제의 중요한 축이다.

아울러 ‘식량 생산 안정과 농촌 진흥’은 종자 산업, 농업과학기술, ‘의무교육 균형과 직업교육 발전’은 스마트교육과 직업교육, ‘고품질 의료 자원 확장’은 인터넷 의료, ‘출산 최적화·노인 요양서비스 보장 강화’는 노인 요양서비스, 영유아 소비, 선행학습 등이 관심 대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 중신증권은 “시장 회복의 2차 물결은 수개월 동안 지속할 것”이라며 “4대 보안 영역과 반도체, IT 혁신산업에 우선을 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인 과학기술과 통신산업은 정부가 꾸준히 투자할 것이고, 부동산을 포함한 주택문제는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다.

중국 밍밍채권연구그룹은 “업무보고에 드러난 신호를 종합하면 안정적으로 성장 중인 부동산 인프라 산업, 디지털 경제 등 새로운 인프라 분야, 첨단장비, 원자재, 신에너지 저장, 태양광, 풍력 분야 등에 투자 기회를 주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또한, 중국 화시증권은 전염병 후 회복과 관련된 의약·식품·음료, 산업 혁신 관련 주제인 통신·증권사·데이터 기기 등 업종을 권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 전체를 보면 중국 사회가 소비를 진작시키는 단계라기보다는 미중 대립에 중점을 두고 사회 통치안정과 국가 안보 관련 사업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기에 5% 성장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국 정책의 첫 번째 수혜자는 중국 국내기업이고 그중에서도 중국 국영기업이나 정부 자본투자가 많은 기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것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기업에 큰 이익을 줄 기회는 적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투자되는 자본, 자재와 인재도 대부분 중국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이기에 개혁개방 시기와 같이 국외기업에 그 혜택이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중국 주식시장이나 자본의 이동을 통해 한국에 유리한 환경이 나오는지 관망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이러한 중국 경제정책의 주요 목적은 우선 중국 국내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이자 안정적인 취업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중국 방식의 ‘뉴딜정책’과 같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계획경제 측면에서 정부가 중국 국내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 2. 국제정세와 중국 정치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국의 대외 군사전략에서 러시아의 군사력에 의지하는 것이 크게 도움 되지 않으며 실제 전쟁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영 간 대립에서는 러시아와의 연대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러시아로부터 일부 기술을 이전받아 중국 자체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 제작 및 선진화된 전쟁전략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에너지 안보와 군사기술 도입 및 러시아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러시아와 안보를 강화하며 미중 마찰에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구자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본 중국은 대만문제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가능성이 큰 군사전략과 협상술을 동시에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이것이 중국의 대만전략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안보와 국내 정치 환경을 고려하여 이데올로기 동맹인 러시아, 북한과의 협력을 국내 정치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 중국이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모습, 사회 및 강한 군사력에 대한 자부심을 인민들에게 알리며 통치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미국에 대한 대립각 역시 국내 정치에 활용하면서 자체적 경제활동 확대로 민심을 수습하며 외부적 ‘중국식 현대화’ 모델을 통해 ‘일대일로’ 전략에 중국적 가치관을 수출하는 경제·문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양회 기간에도 연일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를 벌였는데, 대만 국방부는 양회 넷째 날인 7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대만 주변에서 중국군 군용기 7대와 군함 3척을 탐지했다고 밝혔고 이에 대만은 즉각 전투기와 함정 등을 동원하는 한편 기체 추적을 위한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한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6일에도 군용기 5대와 군함 4척을 대만 주변으로 보냈는데, 특히 Y-8 ASW 해상초계기 한 대는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가 되돌아갔다고 한다. 중국은 이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이 열린 5일에도 Y-8 ASW 해상초계기 한 대와 BZK-005 정찰 드론 한 대를 서남부 ADIZ에 진입시켰다고 한다. 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중국 군용기의 잇따른 대만해협 중간선과 대만의 ADIZ 침범을 ‘뉴노멀’로 만들려는 전술이자 특정 지역을 분쟁지대로 만들기 위한 ‘회색지대 전술’로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국내외 정치에서 ‘대만문제’는 시진핑 시대 ‘핵심 중의 핵심’인 대내외 전략목표가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시진핑 주석의 새로운 지도부를 알리는 시기에도 군부에서 대만에 군사적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만 전문가들은 중국 시진핑 정부는 대만과 미국의 협력에 압박을 가하는 것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 대만에 대해 견제와 협상의 카드를 사용하며 2024년 대만 총통선거를 대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1997년에 반환되어 많은 내부 모순이 나타난 홍콩 문제에 대해 중국정부는 홍콩에서 ‘국가 안보 위협의 싹’을 자르라고 했다고 한다. 3년 전에 중국이 직접 제정한 ‘홍콩국가보안법<sup>1)</sup>’을 통해 홍콩에서 반대파가 꺾이고 집회와 시위가 사라진 상태임에도 국가 안보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3월 5일에 열린 전인대 개막식에 참석한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전날 홍콩으로 돌아와 기자들에게 사바오룽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 및 비서장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고 한다. 시진핑 주석의 측근인 사바오룽은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 주임으로 홍콩 문제가 앞으로 양안 문제 해결에 얼마나 중요한지 시진핑 주석의 의중을 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존 리 홍콩 특별행정구 장관은

1) 중국이 제정해 2020년 6월 30일 시행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샤 주임은 홍콩에 국가 안보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일부 파괴 세력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어 우리가 위기관리를 하며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상기시켰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전했다. 중국의 홍콩 통치문제는 대만문제 해결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중국정부는 변화 없는 중국식 일관적 통치방법으로 홍콩을 중국식으로 안정시키는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본다.

### 3. 양회에 나타난 시진핑 정부

올해 양회는 위드 코로나 전환에도 불구하고 폐쇄 루프 방식의 고강도 방역정책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한다. 양회 참석을 위해 중국 전역에서 온 인민대표들은 폐쇄 루프에 들어가기 전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았고, 행사 기간 호텔과 행사장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한다. 아직도 중요 행사에서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은 철저히 수행되는 것이다.

새로 선출된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정부 고위직 인사를 확정하며 시진핑 3기의 공식 출범을 알리게 되는 이번 양회는 완전한 ‘시자권’ 시대를 여는 행사였다. ‘원톱(해심)’인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당대회에서 당 총서기 및 당 중앙군사위 주석에 오른 데 이어 양회 기간에 국가주석과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에 재선출되며 명실공히 당·정·군을 모두 장악한 ‘1인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2023년의 양회는 시진핑 주석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란 목표를 강조하고 공산당을 중심으로 단결을 촉구하며 폐막 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특히 경제와 과학기술 자립을 촉구하며 대만과의 통일 대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것은 ‘중국경제’와 ‘과학기술’, ‘대만 통일’이 시진핑 시대의 중요과제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연설에서 “5,000년 이상 문명의 역사를 가진 중화민족은 과거 수많은 영광을 창조했고 많은 시련을 겪었는데, 백 년간 분투를 거쳐 인민들은 스스로 운명의 주인공이 됐고 치욕을 씻었다”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정에 진입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중화 민족주의를 더욱 고취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에 대해서 “지금부터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당과 전국 인민의 핵심 임무이며, 강성국가건설과 민족부흥의 새로운 여정에서 우리는 수준 높은 발전을 추진해야 하며 새로운 구도의 발전건설을 가속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말을 종합하면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중화 민족주의에 근거한 ‘사회주의 강국’을 건국하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과 새로운 구도의 경제발전을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꿈인 대만 통일을 이루고 세계로 나가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하면

미중 간 충돌과 대립 및 견제는 당분간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본다. 또한, 시진핑 주석이 '군사력 현대화'와 '과학기술의 자립'을 강조한 것을 보면 경제와 군사 면에서 강대국이 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 패권에 대한 도전의식으로 국내적으로 중화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내용이다. 이는 중국이 국내 정치를 대외정치 이상으로 더욱 중시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러한 모습이 실제적 미중 관계에서도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중국 국내상황을 고려한 상황설정이나 언론에 나가는 것도 같은 이유다.

새로운 내각 구성에서는 리창을 총리로 부총리 4명, 국무위원(부총리급) 5명, 각료 등을 선출했는데, 이는 작년 10월 공산당 당대회를 거쳐 출범한 당 최고지도부에 이어 국무원(정부) 요직도 모두 자신의 측근들로 채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즉, 시진핑 주석은 완전한 정권의 핵심, 국가의 핵심 그리고 군부의 핵심이 된 것이다. 이러한 통치는 러시아의 푸틴이나 북한 김정은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권위주의 지도자의 모습으로 연계된 현상이다.

### III. 평가 및 전망

#### 1.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 국제사회

미국의 중국 봉쇄는 군사와 거시경제 그리고 과학기술, 에너지, 반도체, 2차전지, 금융과 해외 투자 등 전 세계에서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분열로 나타나는 틈새시장과 관련 국가를 공격하고 있다. 미국과 결을 달리하는 유럽, 중앙아시아, 중동,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등의 일부 국가들에 대해 중국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베트남 공산당 리더의 중국 방문이나, 독일 총리와 기업들의 중국 방문,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정상외의 중국 방문과 상호 화해, 중국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방문과 중러관계의 강화, 브라질 대통령과 재계인사들의 중국 방문도 그러한 일이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이데올로기에 의한 대립이나 동맹 간 협력은 국제 정치경제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르게 작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미 국내 정치경제 상황의 문제와 '미국과 국제사회'라는 측면에서 국제사회를 이끌 힘이 부족한 상태라고 의심받기도 한다. 그리고 러시아 경우에도 오히려 중국의 도움을 원하는 상태에서 중국과 한 팀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다. 미중 간 대립으로 인해 미국과 동맹국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그들의 동맹국과 대립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세력의 대립 사이에서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는 자국의 국익을 위해 각기 다른 여러 결의 정책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유연한 능동과 수동의 국제정치 미학이 필요한 이유다.

중국은 대만문제에 있어서 ‘강대강’ 분위기로 대만 민진당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대만 국민당 전(前) 주석과 전 총통 마잉주의 중국 방문은 시진핑 정부가 대만에 대해서도 화해의 분위기 조성으로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펼치는 것이다. 반대로 대만 총통인 차이잉원은 남미 순방에 미국 본토 방문을 예정하고 있고 미국의 하원 전 의장과 의원들도 대만을 방문하며 민진당이 더욱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국민당을 견제하고 내년 총통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대미전략에 있어서 시진핑 정부는 미국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면서도 더욱 강하게 민진당 대만 정부에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당과 기업인에게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의 속내에는 대만문제에 대해 미국에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즉, 대만문제는 같은 중국인의 한 나라의 문제라는 ‘하나의 중국(One China Policy)’ 전략을 양안관계에도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 측면에서 대만과의 교류를 통해 양측 민심이 ‘경제와 평화’라는 측면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여 장기적 화합(통일)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 대만문제에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중국과 대만에 피해가 크기에 중국은 장기적 포석을 두고 대만문제를 해결하려는 ‘당근과 채찍’ 양수 전략을 동시에 사용하며 양안 정부와 기업 및 민간의 소통을 강조해 나가고 있다. 이것이 ‘조국의 위대한 업적-완전한 통일’을 이루려는 시진핑 정부의 대만에 대한 전략이다. 중국은 대만문제를 중국에 유리하게 이끄는 경우, 이것이 미중 간 대립에서도 유리한 환경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양안 문제를 동북아지역 문제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동북아에는 러시아도 있고, 북한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세력에 어느 정도 원충작용을 하고 있어 복잡한 국제관계로 충돌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지만, 대만의 경우 서로 바다를 두고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의 전쟁은 지정학적 위협성이 높다고 보는 면이 있다. 또한, 대만에는 미국, 일본의 세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 충분한 위협이 된다. 다른 측면에서 대만 반도체 등 관련 산업의 중요성이나 대만 독립 성향 그리고 중국 국내정치적으로 충분히 활용된 ‘하나의 중국’ 교육으로 인해 대만해협이 경우 만약의 경우 충돌이나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이 일본과 호주 그리고 한국과 필리핀에 대만해협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하며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바로 이 동북아와

동남아가 연결되고 미국의 서태평양 기지와 전방인 대만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대만이 중국과 같은 힘이 된다면 미국과 미국의 동맹은 서태평양에서 중국과 직접 대치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이는 동북아 및 동남아 국제관계에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대만의 맞은편인 푸젠성과 대만과 관련이 깊은 상하이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시진핑 주석은 대만의 중요성에 대해 몸소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시진핑 시기 정치·경제적 대외관계의 중점은 미중관계지만 군사와 지정학적 핵심은 대만문제라고 할 수 있다.

## 2. 미중대립에서의 중국과 동북아 관계

동북아 국제관계의 구조는 양안의 대립구조와 차이가 있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지만, 동북아지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동북아에서 러시아, 북한과 협력하여 그 대치가 격화되고 있지만, 미국은 이에 따라 대중국 봉쇄 전략의 힘이 분산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전개되기도 전에 견제와 경쟁 전선이 더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중국으로서도 북한에 대한 적절한 조절을 통한 포용과 협력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에 각을 세울 것이지만, 이곳에서의 마찰로 양안 문제의 동력을 상실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중국의 동북아 전략은 중·러·북 이데올로기 사회체제 동맹을 통해 미국에 각을 세우며, 한국에는 지정학적 유대를 통해 양안 관계와는 다른 ‘당근과 채찍’ 정책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에 대해 한미일 동맹이 약해지도록 항일전쟁을 강조하며 경제적 동북아 유대라는 끈으로 접근할 것이다. 또한, 북한문제에 대한 개입과 경제적 ‘제재 가능성’을 활용하며 한국과 유대와 견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해서는 러시아와의 협력은 꾸준한 지원과 보장을 해주면서 중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다. 이는 중국이 미중관계와 대만문제에 집중하는 동안 동북아의 변수가 중국의 대외전략 동력을 상쇄하지 않게 그 범위와 힘을 조절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이유는 중국은 국내 정치에서 대만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에 대해서는 한미관계와 한일관계 그리고 남북관계의 역학을 보며 한중관계에서 정치와 경제적 조절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우호적 태도를 유지하며 일본이 미일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도 협력의 끈을 강하게 할 방법을 기다리며 찾을 것이다. 중국은 동북아지역에서의 군사적 안보 측면에서 러시아와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적으로 러시아 및 북한과의 협력관계도

높여 나갈 가능성도 있다. 이를 통해 한중 경제 관계와 군사안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며 중국의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높여 나갈 가능성도 크다.

### 3. 세계와 동북아 국제환경에서 한국경제와 안보

한국 주변 국가들의 경제환경이 모두 안보환경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중국이나 일본이 한국경제의 동력이 되기는 당분간 어렵다고 본다. 한국이 중국을 통해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하던 제품이나 혹은 중국으로 수출하던 상품은 미중 경쟁으로 인해 많은 제품과 상품이 수출길이 막혔있는 상태다.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이 시점에 경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중국의 보이지 않는 힘이 한국에도 작용할 수도 있고, 중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국 산업 보호책이나 중화 민족주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제 현상이 더욱 강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일간의 경제협력도 그 범위와 양을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인데, 이는 산업 구도의 문제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이 많은 상태다. 현재 시장에서 중요한 일은 금리와 환율 그리고 미국과 각국의 시장 활성화 문제인데, 이러한 국제경제가 호전되기 전에는 단순히 중국 내수경제나 수출의 영향이 우리의 대중 수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안보적 차원에서 한국은 꾸준하게 북한의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비록 한미동맹으로 안보를 강화할 수는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필요에 따른 지원을 받는 북한을 제재할 충분한 힘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본다. 미국의 관심이 미국 중심의 산업 재조정과 중국 봉쇄를 위한 대만문제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한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안보체제를 강화하며 중국이나 북한과 소통하며 우리의 전략적 레버리지를 높일 필요성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와 같다. 더 나아가 동북아국가뿐만 아니라 동남아국가를 포함한 아시아와 대양주 및 중동, 유럽 및 중남미 국가들과의 관계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한국경제와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도적이며 진취적인 전략외교와 통상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이제는 외교부, 산자부, 국방부 등 모두가 정부와 유기적 협력으로 국방안보와 경제안보에 효율을 높이는 전면전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정부 및 언론기사>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한민국 정부

『중앙일보』, 「한중비전포럼, 코로나 고삐 풀 중국, 어디로 갈까」, 중앙일보, 2023년 2월 15일.

『중앙일보』, 「시진핑 3기 ‘칼자루’ 질 슈퍼위원회 뜬다...신설될 중앙내무위는」, 2023년 2월 27일.

『SBS Biz』, 「中 국가데이터국 신설...디지털정보 총괄 빅 브러더 우려」, 2023년 3월 8일.

『디지털타임스』, 「中, 올 성장률 5% 안팎 제시 | 中리오프닝→韓경제 반등 기대 꺾여... 수출 회복 늦어질 듯」, 2023년 3월 5일.

『중앙일보』, 「中 3대 책사 왕후닝 일국양제 잘 알리라」, 2023년 3월 9일.

『연합뉴스』, 「시진핑, 中 국가주식 만장일치 재선출...사상 첫 3연임(종합)」, 2023년 3월 10일.

『연합뉴스』, 「경제사령탑이나, 시진핑의 중복이나...2인자 中 리창 행보 주목」, 2023년 3월 11일.

『파이낸셜뉴스』, 「이란, 사우디와 외교 정상화 합의...중, 중재 이끌어」, 2023년 3월 11일.

『서울신문』, 「반도체는 안보 네덜란드도 중국에 수출 규제... 삼성·SK 긴장모드」, 2023년 3월 9일.

『警政時報』, 「美中敵意螺旋上升 | 台海局勢暗潮洶湧」, 2023년 3월 23일.

『BBC中文』, 「74年來首次 台灣前總統馬英九訪問中國大陸祭祖是否有政治意味」, 2023년 3월 21일.

增速5%：释放推动经济整体好转的积极信号

([http://www.news.cn/politics/2023lh/2023-03/06/c\\_1129415530.htm](http://www.news.cn/politics/2023lh/2023-03/06/c_1129415530.htm))

外媒：中国2023年GDP增长目标 彰显重振经济信心

(<http://news.haiwainet.cn/n/2023/0305/c3541093-32570503.html>)

### <웹사이트>

House China committee holds hearing on Chinese Communist Party's threat to America  
— 2/28/23 (<https://www.youtube.com/watch?v=f7iLP6QWNeU>)

- China's new foreign minister Qin Gang hits out at US on Ukraine, rate hikes and Taiwan  
(<https://www.youtube.com/watch?v=jpetjfc-c0&t=24s>)
- Geopolitics of East Asia: the Future of Japan-China Relations  
(<https://www.youtube.com/watch?v=395UEyBWMMc>)
- White House Warns China Not To Use Taiwan President's U.S Visit To The Return  
of Great Power Politics: America in the 21st Century  
(<https://www.youtube.com/watch?v=wKM6YdIwxQo>)
- Raise Tensions | Taiwan News Live  
(<https://www.youtube.com/watch?v=3soydWA71K4>)
- 2023年全国两会正式拉开帷幕！关注《政府工作报告》 过去五年中国经济社会发展完成  
了哪些任务？| CCTV「新闻1+1」 20230305  
(<https://www.youtube.com/watch?v=OM4lMX1Aw60>)
- 3/6 【#时事大家谈】两会开幕，习近平牢牢抓紧四套班子？中国人大选举是“世界最大  
的民主选举”，你信吗？(<https://www.youtube.com/watch?v=e35LDh5fKUo>)
- 中國「兩會」北京開幕 李克強作最後一次政府報告 - BBC News 中文  
(<https://www.youtube.com/watch?v=Uq35EQXDjQM>)
- 【國情咨文 025 CN】龔小夏博士：「兩會」解讀（上）：老同學李克強全身而退，已經  
鬆一口氣 (<https://www.youtube.com/watch?v=M7Mw-HbySe8>)
- 【LIVE】中國全國兩會 習近平三連任政經考驗 20230305  
(<https://www.youtube.com/watch?v=QsDvgbMgYak>)
- 中國「兩會」登場 將確認新執政團隊 | 華視新聞 20230304  
(<https://www.youtube.com/watch?v=GXY58nqmK-Y>)
- 解讀兩會關鍵字"開局之年 雷倩:藏於九地.動於九天 分析李克強"期末報告" 這點和美國不  
一樣！(<https://www.youtube.com/watch?v=WzWOpX74vKs>)
- 시크리컬 상승이 중국 양회와 연결되는 이유 f. KB증권 박수현 팀장 [글로벌 이슈체크]  
(<https://www.youtube.com/watch?v=I5k8G9SS0u8>)